

# 임실, 하반기 핵심사업 '고삐'

### 주요업무보고회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집중토론 민선 7기 핵심공약, 으뜸도시 성장 발판 마련 총력

민선 7기 출범 일주년을 앞두고 임실군이 올해 하반기 군정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심 민 군수는 18일부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회를 잇따라 개최, 군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치즈과와 체육청소년과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 및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임실군은 상반기에 ▲본예산 및 일반회계 최초 4천억원대 달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총사업비 70억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44억 원), 갈마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20억) 등 굵직한 공약사업 선정 ▲임실N치즈축제 문화관광체육부 '2019 우수축제' 선정 ▲임실N치즈 6년 연속('14년~'19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 ▲일진제강(주) 임실제2능공단지 분양계약 체결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확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와 민선 7기 핵심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전북도 으뜸도시로서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농촌 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대응을 철저히 하고, 육정호와 성수산 생태관광 지원

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500만 관광객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더 새로운 축제로 변화시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색 있는 복지정책도 강력히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한껏 끌어 올리기로 했다.

심 군수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지난 민선 6기와 올 한해 군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통해 임실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며,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 핵심사업과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연 초 수립한 로드맵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 군수는 다음 주까지 부서별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세부 사업별로 재정신속 집행을 꼼꼼히 챙기는 등 마지막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당뇨 치유 최고 순창,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당뇨밥상 배달 및 당뇨치유 프로젝트 추진 등

당뇨 치유 1번지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장수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로 첫 선을 보인 순창군은 2014년 5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80명 등 누적 교육생 700여명을 돌파했다.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약물과 인위적인 치유에 집중하는 기존 당뇨 치료법과는 달리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이계호 전 총남대 교수를 필두로 당뇨 명의인 조선대학교 당뇨센터장 배학연 교수 등 새롭게 강사진도 구성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전

국에서 모인 4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하며,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군은 바른먹거리 당뇨학교가 당뇨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면, 실제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 당뇨치유(休) 프로젝트도 지난 4월 선보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군의 주력분야인 장내 미생물 분야를 활용한 유익균주 활성화를 유도해 체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참가 전후 장 검사에서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의 6.6%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38.2% 감소하며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 올해 선보이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당뇨밥상 배달사업'은 '착한밥상'(대표 김영희)과 협력하여 당뇨식 건강식단을 마련해 직접 집 앞까지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3회에 걸쳐 저녁식단을 배달해주는 것으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엄선된 재료, 채수를 활용한 간장과 양념소금 등을 사용한 건강 음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일 첫 배달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매주 수요일 마다 배달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8월과 11월, 국민들이 당뇨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당뇨캠프도 개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생태나누리 참여자 모집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생태체험형 생태나누리 캠프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공원탐방 트레킹 및 혼불문화관, 구서도역 영화촬영장 견학과 목공예체험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며, 모집대상은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으로 1회 20명 내외로 무료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참가신청(단체만 가능) 및 문의 사항은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탐방시설과(담당 최은하 063-630-8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폐교인 두동초를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조장 및 발효 아카데미로 조성한다.

# 남원시, 폐교를 양조장으로 조성

### 총 사업비 25억원 투입

남원시는 폐교인 두동초(송동면 연산리)를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조장 및 발효 아카데미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동초는 대지면적 1만6379㎡에 연면적 1573.91㎡의 2층 조적조 건물로 현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총 사업비 25억원(도비 10억, 시비 15억)이 투입된다.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의 흥물로 버려진 방앗간, 폐교 등을 주민공동이용시설(작업장, 양조장, 카페 등)로 재생시켜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옛 두동초등학교를 '햇살가득 섬진강 섬섬옥주 6차 산업화 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곳 1층에 발효·양조 시설, 청년창업 수제맥주 공유 제조시설 등을,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전통발효 아카데미 공간을 각각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동장에는 캠핑장과 주차장을 만들어 수제맥주 마니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1박 하면서 발효체험도 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락 페스티벌, 청년음악회 등 계절별 축제를 추진해 남원 전통명주를 홍보하고 수익창출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남원은 물맛이 좋고 공기가 깨끗해 좋은 술이 생산되고 있으며, 누룩 장인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완성한 뒤 마을주민, 청년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한편 서평인 남원시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일자리 및 지역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남원을 관광도시로서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벤치마킹

남원시 규제개혁 담당 직원들은 18일 창원시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청을 방문했다.

창원시는 민간합동 규제개혁 인증심사위원회 검증 결과 가장 높은 점수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전반적인 규제 개혁 제도와 규제신고 처리 절차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남원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됐으며, 창원시는 그간 추진했던 규제개혁 업무전반에 대한 내용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한 규제예외 건의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창원시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 독거노인 보호준비 만전 생활관리사 방문 건강상태 확인

남원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6월초부터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노인을 대상으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9월까지 독거노인 보호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폭염 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독거노인은 1860명으로, 읍·면·동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수시 안부전화로 실시하고, 주1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에서는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62명 배치해 1인당 30명의 독거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마을별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에게는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과 폭염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은 한낮에 외출을 삼가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를 적절히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법제가이드라인 실무능력 도모 임실군, 농민교육장서 교육 실시

임실군은 18일 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군 소속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 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소속 김은영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법제처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행정으로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유연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